

23-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총학생회장 (조준범):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정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개월만에 뵙습니다. 1년에 2번 열리는 전학대회에 이렇게 시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학대회에 두번째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번 학기 전학대회는 147명중 138명 참석으로, 아마 성균관대학교 전학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전학대회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 학생사회, 그리고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고, 또 심지어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우리 학교는 전학대회를 비롯해서 중앙운영위원회도, 자리에 불참석한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은 왜 이 이렇게나 높은 참석률로 이 자리에 해주셨을까, 전학대회는 뭘까, 왜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전학대회는, 즉 전체학생대표자회의죠, 총학생회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회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일반 학생들과는 구분된, 우리 집행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을 뜻하며,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의 모임, 즉 18,000 성균인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단과 저희 집행부를 흔히 총학생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여러분 모두 총학생회의 일원이고, 여러분은 저희와 진행하는 사업은 다를지라도, 총학생회와 구분되지 않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대의원으로서,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 자치의 발전을 위해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왜 내가 전학대회에 참석해야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각 단위의 대표로서 우리 단위의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임으로써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가 발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서 부디 사명감을 갖고, 총학생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견제와 감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곧바로 오늘 전학대회 수순을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학대회는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칙 및 전학대회 운영 세칙 안내, 전차 회의록 낭독, 보고 안건, 인준 안건, 논의 안건, 기타 안건, 건의 및 기타 질의 안건 및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정족수 확인을 위한 대의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대답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경우에는 그 위임자의 이름이 호명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 부르겠습니다.

(출결확인)

혹시 제가 출석을 안 부른 분이 있나요? 없으시다면 정족수 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이름표, 명찰이나 비표를 수령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명찰이나 비표를 수령 안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단위를 제외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모두 호명하였습니다. 총 재적 위원 157명 중 참석 위원 130명으로 정족수 79명을 채워 19시 23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사항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나가시더라도 나눠 드렸던 비표는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하며, 완전히 퇴장하시는 경우에는 비표와 명찰을 모두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시는 방법은 비표를 들어서 의결을 표해 주시면 되고 의결 후에 양 끝으로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표 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것 기억합니다만,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비표만큼 더 확실히 재적 인원을 확인하고 더 깔끔히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로서 새로이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결론지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발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꼭 밝힌 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기에, 출석 위원이 정족수 79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자동으로 휴회됩니다. 부디 출석해 주신 대의원분들께서는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3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을 맡은 제55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영상학과 18학번 조준범입니다. 서기단으로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통계학과 21학번 장보영 학우,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글로벌경제학과 23학번 정민규 학우 소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세칙 소개입니다. 모두 PDF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21쪽의 전학대회 관련 회칙 조항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쪽의 제 4장 제 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있고요. 본 회의는 총학생회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소집된 매 학기 초 정기 회의이며, 지금으로부터 11일 전인 8월 24일에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54조 2항, 3항, 4항, 11항입니다. 기타 총학생회칙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44쪽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겠습니다. 44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의사진행, 안건 상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본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47쪽의 전차 회의록 낭독입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장보영 학우께서 2023학년도 1학기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장보영):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통계학과 21학번 장보영입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자료집 47페이지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19시에 경영관 33B101에서 재적의원 147명 중 138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었습니다. 개회 선언 후,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했습니다. 의장은 제55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영상학과 18학번 조준범 학우이며 서기단은 경제학과 19학번 김정수, 영어영문학과 20학번 연수인 학우가 맡았습니다.

이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고, 전차 회의록인 2022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록을 낭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안건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안건은 총학생회 운영, 사업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준안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준 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입니다. 총학생회 국·차장 내정자 18인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으며, 출석위원 137명 중 찬성 137,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준안건은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고 그중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에 총학생회비의 61%를 배분한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에 44%, 납부인원 비례에 23%, 학생 수 비례에 33%를 배정한다.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을 나누어 각 단과대 학생회로 균등 추가 배분한다.'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출석위원 137명 중 찬성 137,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준안건은 예산안입니다. 축제 실무비용, 대여사업 물품 확대 및 추가 비치, 차기 이월금,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으며, 출석위원 136명 중 찬성 124, 반대 9, 기권 3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준안건은 결산안 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간식 배부, 겨울 학위복 대여사업 식대에 지출한 것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석위원 135명 중 찬성 131, 반대 3, 기권 1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논의 안건은 없었으며 건의 및 기타 질의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 51, 52페이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3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폐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차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의 사항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 사업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입니다. 자료집 53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보고 안건은 총학생회 운영과 총학생회 사업 보고 두 가지로 나뉘며, 첫째로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1학기 전학대회가 열린 3월 20일 이후부터 오늘 9월 4일까지의 운영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중앙운영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로 오늘 18시에 진행된 제25차 중앙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도합 15차수 중앙운영위원회, 2차수 연석 중앙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2023년 3월 21일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합 16차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 산하에 9개 집행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총괄국, 인사운영국, 학사정책국, 문화기획국, 인권복지국, 대외협력국, 디자인홍보국, 미디어콘텐츠국, 그리고 사회교류국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9개 집행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차장 내정자에 대한 소개는 첫 번째 인준안건인 '국차장 인준안건' 진행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총괄국은 총학생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검토하는 국서입니다. 학생회비, 후원금 등 전체 예산을 집행·결산하고, 각종 공문 및 기록물을 관리합니다. 이처럼 각 국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사운영국은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운영과 대외적 소통을 담당하는 국서입니다. 집행위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학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소통 창구 및 SKKUPlace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사정책국입니다. 학사정책국은 학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며,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불편 사항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학우들의 의견과 총학생회의 공약을 토대로 학교 본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사 운영 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국서입니다.

문화기획국입니다. 문화기획국은 문화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기획 및 추진합니다. 입학식, 대동제, ESKARA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총괄하며, 이외에도 학우들의 캠퍼스 문화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기획을 진행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권복지국입니다. 인권복지국은 학우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사전 인권 교육, 배리어 프리 정책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교내 시설 및 환경 개선, 이동 수단 개선 등 다양한 학생 복지 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서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입니다. 대외협력국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 제휴를 통해 학우들을 지원합니다. 기업과 프로모션을 유치하여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학교 행사 및 학우들의 학교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홍보국입니다. 디자인홍보국은 총학생회 공식 소통 창구를 통한 홍보 기획을 총괄합니다. 총학생회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을 구상하는 모든 시각화를 담당하며, 총학생회 행사의 홍보물과 굿즈 제작 등 전반적인 브랜딩의 업무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국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은 총학생회 행사 및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 단계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감 있는 사진 촬영을 통해 사업 및 행사의 모습을 공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류국은 졸업을 앞둔 학우들과 사회에 진출한 동문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졸업 행사 전반을 총괄하고, 동문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동문과 학우들을 잇는 성균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학우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담당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의 보고에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총학생회 사업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보고를 하기에 앞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후원금 결산안 보고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전학대회를 진행할 때, 후원금 예·결산안을 인사캠의 경우 인준안건으로, 자과캠의 경우 보고안건으로 진행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2017년 제49대 총학생회, 아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성큼'에서 후원금을 전학대회에서 처음 인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인사캠의 경우 관례상 후원금을 인준안건으로 올렸으나, 자과캠의 경우 학생으로부터 오는 재원이 아니고 총학생회 측에서 제휴와 프로모션을 유치하여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보고안건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작년 통합 총학생회칙이 출범을 하면서 인사캠이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자과캠과 같이 전학대회만 함께 진행하게 된 현 시점에서, 인사캠 총학생회에도 2023-1학기 정기 전학대회를 준비하면서 자과캠처럼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당, 당시에는 관례를 따라 인준안건에 올렸고, 이번 2학기 전학대회부터는 양 캠퍼스가 진행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이의 없음으로 이번 학기 전학대회부터 후원금 결산 보고는 인준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에서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사업 보고는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학우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지민입니다. 자료집 페이지 62페이지부터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진행할 사업보고는 총 33개입니다. 사업보고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소통, 학업과 학사, 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인 1번부터 19번까지 사업보고를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후 문화 및 브랜딩, 제휴에 관련된 20번부터 33번까지 사업보고를 진행한 후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 소통창구 SKKUPlace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월 1회 오프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각 회차마다 다른 국서들이 콘텐츠를 준비하여 학우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통창구에 들어온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은 수렴하여 사업 진행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2023학년도 2학기 운동장이용협의회의입니다. 8월 21일 진행된 운동장이용협의회를 통해 2학기 평일 운동장 사용 시간을 배정하였고 회칙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기층 단위 학생회 소통창구 SKKUPartner입니다. 총학생회와 기층 단위 학생회가 직접 만나 소통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경제대학 2회, 경영대학, 동아리연합회, 문과대학 각 1회 진행하였으며, 사범대학과도 진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학업과 학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인 GPA 환산식 개정은 타학교에 비해 불리한 성균관대학교의 현행 GPA 환산식을 개정하고 이를 적용시킨 사업입니다. 개정된 GPA 환산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혹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 마련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입사 경쟁률로 기숙사 입사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을 위해 종로구청과 협업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종로구청의 주선 하에 사학재단과 소통을 진행하여 학우들을 위한 행복 기숙사 티오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신설입니다. 비교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며,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 학우의 등록금 환원 체감률 제고를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역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혹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학생 예비군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불이익이 간 경우는 없는지 조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저장강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저장강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시설이 미흡한 경우를 확인하여 학우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군복무 학점 이수제 강화입니다. 기존 군복무 중 이수 가능하였던 학점 수를 6학점에서 9학점까지 상향하고, 개설 강의수와 개설 교과목의 범주를 확대하여 군복무 중인 학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업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종로구청-성균관대 총학생회 협력 간담회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종로구의 중심 대학으로서 종로구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크게는 이동 편의 증진, 주거 문제 해결, 문화 사업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력 간담회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우 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종로07 마을버스 교내 진입 사업입니다. 협력 간담회를 기점으로 대동제 이동 지원 겸 시범운행, 종로07 교내 진입 희망 설문조사, 2차례의 혜화동 통장회의 참석, 혜화동 상인 간담회 진행이라는 과정을 거쳐 8월 1일 종로구 노선조정심의위에서 가결이 되었고, 8월 중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9월 1일부터 종로07 마을버스 성균관대 연장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학우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양심 생리대 공간 이전 및 확충입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양심 생리대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이 낮은 호암관 5층을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국제관 2층에도 양심 생리대함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우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은 장애 학우 엘리베이터 우선 탑승 캠페인 사업입니다. 주기적 장애 인권 좌담회를 통해 장애 학우 엘리베이터 우선 탑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 및 장애 학우 우선 탑승을 활성화하여 장애 학우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은 금잔디식당 비건 간편식 상시운영 안내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진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식단 다양성 확대 및 비건 음식의 항시 제공을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잔디식당의 중식 시간에 운영됩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은 2023 대동제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 인식 설문조사입니다. 대동제 기간 중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와 학우들의 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배리어프리존 운영에 관련된 피드백 수합을 시행 하였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하여 학우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은 2023년도 하계 학위복 대여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023년 2월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전통 학위복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은 예비군 조식 사업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 예비군 기본 훈련에 참여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생 예비군 학우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훈련을 위해 총학생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사업은 시험기간 응원 간식 배부 사업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상으로 총 2회 진행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은 2023년도 1차 졸업앨범 촬영 안내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컨셉의 촬영 기회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통, 학업 및 학사, 인권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넘겨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문화 및 브랜딩과 관련된 사업보고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사업은 2023 금잔디 문화제입니다. 금잔디 문화제는 학기 중의 첫 오프라인 축제로 모두가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우 분들께서 직접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즐길 거리를 마련하며 직접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학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은 2023 대동제입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기존 대동제가 진행되었던 금잔디 광장 뿐만 아니라 대운동장과 학교 일대를 넓게 사용함으로써 학우들에게 행사 테마에 맞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대동제 역시 함께해 주신 많은 학우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물두 번째 사업은 2023 킹고대장정 in 제주입니다. 오랜 기간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고유한 행사로써, 올해는 제주도 올레길 약 170KM를 거쳐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여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학우분들께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사업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with SKKU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대학로의 중심인 혜화역 앞 거리에서 성균관대학교의 브랜딩을 위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총학생회 콘텐츠 이외에도 예술대학과 동아리 공연, 예술대학 및 지역 소상공인 부스를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사업은 신규 학생증 발급 시행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신규 학생증 디자인을 토대로 새롭게 학생증 발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기한 내 신청 완료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학생증 우선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업은 스콥과 포토에이스가 협력한 대동제 셀프 촬영 부스 설치 사업입니다. 대동제 기간 중 성균인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교내에 셀프 촬영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대동제에 맞는 프레임을 제작하여 대동제의 컨셉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업은 스콥과 포토이즘이 협력한 셀프 촬영 부스 설치입니다. 학위복 대여 사업 기간에 맞추어 졸업생들이 학교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셀프 촬영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전용 프레임을 제작하여 학교의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제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업은 어도비 라이선스 모집 사업입니다.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도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진행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사업은 SKKUPass 성균인 멤버십 제휴 사업입니다. 재학생과 신입생 학우들에게 학교 주변 상권을 소개함과 동시에 상권과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SKKUPass 사업은 스콥 임기 종료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학우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스물아홉 번째 사업은 스콥과 시에나스튜디오가 협력한 전통 학위복 촬영 제휴 사업입니다. 학위복 대여 사업 기간 외에도 전통 학위복을 대여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제휴를 체결하여 학우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사업은 여름잡 뮤직페스티벌 제휴입니다. 학우들의 원활한 문화생활의 고취를 위해 제휴를 진행하여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사업은 K현대미술관 전시 제휴입니다. 해당 전시 제휴는 성균관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총 3가지 전시별로 선착순 20명에게 초대권을 배부하여 원활한 문화생활을 응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사업은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 전시 제휴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부생들이 30% 할인된 가격에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 서른세 번째 사업은 대학로 CGV와 진행한 제휴 사업입니다. 캠퍼스가 위치한 대학로 내의 CGV와 두 차례 제휴 사업을 진행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학우들의, 학우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3개의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보고의 내용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원금 결산안입니다. 후원금 결산안에 대한 세부 증거 자료 및 영수증과 같은 자료는 전학대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총학생회가 학생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외부 기업 또는 단체, 혹은 학내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후원금 결산을 매학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월 전학대회 이후로 지출된 후원금에 대하여 결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후원금 이월금으로 8,345,881원, 외부 기업인 원모아 1,250,000원, 밝은성모안과 3,500,000원, 고려씨씨씨 6,000,000원, 영단기/공단기 1,200,000원, 다음으로 축제 입점 기업 아이레시피 3,000,000원, 빌리프 1,500,000원, 축제 입점으로 푸드트럭 10,000,000원과 플리마켓 1,000,000원, 블리처스와 비리얼에서 진행한 커피차 각 1,000,000원, 농심 캠퍼스 어택 1,000,000원, 갤럭시 스튜디오 100,000원으로 총 제휴 광고비 34,550,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학위복 대여 사업을 위한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금으로 967,090원을 받았고, 기타수익으로 예금 결산 이자 9,706원, 포토부스 수익 3,000,000원, 굿즈와 바이킹을 포함한 대동제 수익 19,163,000원을 받아 수입총계는 66,035,677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간식 배부에 1,390,000원을 사용하였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 간식배부의 경우 후원금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제품 협찬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여 별도의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잔디 문화제 때 배부한 굿즈 제작으로 902,300원, 금잔디 문화제 진행 비용으로 기획사 측에 2,497,000원 지출하였고, 대동제 판매 굿즈 및 배부 티셔츠 일부 제작으로 19,995,530원, 대동제 진행 비용으로 엑스배너 및 현수막 제작, 기획사 진

행, 이외 진행으로 총 33,51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 학위복 대여 사업의 실무단 식사 제공으로 916,140원, 졸업생 분들이 이용할 거울 구매로 91,000원 사용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석사 학위복 대여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충 측에서 식비로 지원해 주신 후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제 기간 촬영 장비의 수리 비용으로 총 214,000원 사용하여 지출총계는 59,520,060원입니다.

이상으로 후원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후원금 결산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분 계실까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후원금 결산에 대한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다음으로 인준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준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 인준 안건입니다. 자료집 180 페이지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산하 9개 집행국의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도록 회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정한 국장, 차장들이 인준을 받기 위해 대의원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을 받고자 하는 국장, 차장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집행위원장의 경우,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여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사무총괄국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총괄국장 내정자 유학동양학과 20학번 유나은 학우입니다. 사무총괄국 차장 내정자 영상학과 22학번 서민혁 학우입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통계학과 21학번 장보영 학우입니다.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글로벌경제학과 23학번 정민규 학우입니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서자빈 학우입니다. 학사정책국 차장 내정자 경영학과 22학번 윤지민 학우입니다. 문화기획국장 내정자 경제학과 18학번 정상묵 학우입니다. 문화기획국 차장 내정자 소비자학과 21학번 정서진 학우입니다. 다음으로 인권복지국입니다. 인권복지국장 내정자 컴퓨터교육과 19학번 김태건 학우입니다. 인권복지국 차장 내정자와 대외협력국 국·차장 내정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인권복지국 차장 내정자 경제학과 21학번 신윤주 학우, 그리고 대외협력국장 내정자 경영학과 21학번 박정현 학우, 대외협력국 차장 내정자 경제학과 21학번 신하늘 학우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홍보국입니다. 디자인홍보국장 내정자 영상학과 20학번 임예진 학우입니다. 디자인홍보국 차장 내정자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문혜원 학우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장 내정자 영상학과 20학번 정호은 학우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 차장 내정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권예나 학우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한문교육과 20학번 남궁가영 학우입니다. 사회교류국 차장 내정자 경영학과 22학번 김주원 학우입니다.

국차장 내정자분들께서는 단상을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해당 내정 인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의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비표는 앞서 출석을 불렀던 대의원 분들만 내주시면 되구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각 좌석의 양쪽 복도로 모아주시면 저희 의결 도우미가 비표를 모아서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 비표만 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과 안정훈, 김해준, 두 분 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두 분 다 비표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한 분 반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의결 도우미가 비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권하시는 대의원분께서 비표를 들어주시면 비표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비표를 가지고 계신 대의원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집계 진행하겠습니다.

의결 집계 완료되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인원 128명, 찬성 128,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준안은 학생회비 배분안 인준입니다. 의결 도우미들께서는 비표를 다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의원분들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확인해주시고요, 배분 받으시는 동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먼저 배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학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생회비 총액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4일 기준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총 3,785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사실 매년 1학기에 비해서 납부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5,027만 원이 걷혔는데요, 다만 작년 2학기에 대비해서 약 10% 정도 높은 수준의 학생회비가 모였고 . . . 아직 최종 등록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도 휴학이나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최종액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학기에는 항상 관례적으로 11월에 진행될 선거를 위해서 제5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비용으로 학생회비 전체에서 3,200,000원을 우선적으로 제하고 모든 단위로 배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는데요, 특별자치기구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있고, 각각 28%, 11%를 배분받습니다. 남은 61%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배분받습니다.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요,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배정액 44%, 납부 인원 비례액 23%, 학생 수 비례액 33%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법과대학에 현재 장기 재학 중인 학우분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회비는 남은 단과대들이 나눠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과대학 학생회비가 정해지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학생회비 배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배분액은 최종 등록 및 중도 휴학 등으로 인한 최종 학생회비 납부 현황에 따라 소폭 변동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수점 아래의 금액은 편의를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한 번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질의 있는 위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정도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8시 3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진행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대의원이 아니다, 혹은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비표를 받으셨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비표를 반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럼, 양쪽 끝 복도로 모아주시면 저희 비표 도우미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양쪽 끝 복도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견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권하시는 의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집계하겠습니다. 혹시 비표를 아직 갖고 계신 대의원분들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24, 찬성 124,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번째 인준안건은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안입니다. 183쪽입니다.

학생회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안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결산안인데요, 수입으로 제55대 중선관위 이월금 724,884원,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7,435,642원, 당기 학생회비 14,075,600원, 예금 결산 이자 5,138원으로 수입 총계 22,241,264원입니다. 지출로는 대여사업 물품 교체 및 추가 비치로 735,310원, 대동제 배부용 티셔츠 제작으로 10,290,000원으로 지출 총계 11,025,31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 잔액은 11,215,954원입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 근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총학생회에서 상반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손을 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표 다들 가지고 계실까요? 아직 나눠주는 중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비표 모두 받으셨을까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했 괜찮을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양쪽 끝으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비표만 수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쪽 복도 끝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 비표가 있으실까요? 기권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복도 끝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표를 안 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의결 집계가 길어지고 있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27명, 찬성 12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인준안건은 2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료집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 내역입니다. 전기 이월금으로 11,215,954원, 당기 학생회비 9,702,000원으로 수입 총계 20,917,954원입니다.

지출 예정 내역입니다. 대여 사업 물품 교체 및 추가 비치로 332,300원, 에스카라 실무 비용으로 14,722,000원, 차기 이월금으로 2,863,654원, 그리고 예비비로 3,000,000원, 지출 예정 총계 20,917,954원입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제 실무 비용으로 인자셔틀 5대 증차 1,760,000원, 배부용 티셔츠 2,200장 제작으로 10,762,000원, 의료용 구급차를 위해 2,200,000원으로 총 14,722,000원입니다. 견적서는 뒷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참고차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제기간 대절하는 인자셔틀은 총 30대이며, 배부용 티셔츠는 3천 장으로, 학생회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만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대여 사업 물품 교체 및 추가입니다. 총학생회 오피스아워 물품대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손실되고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어 새로이 교체 및 추가를 진행하는 것이구요, 사용처로는 보조배터리 5개 42,500원, 접이식 운반카트 2개 156,700원, 아이스박스 100L 2개 해서 133,100원으로 총 332,300원입니다. 견적서는 뒷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 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총학생회에서 2학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그럼 빠르게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예산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기 예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혹시 아직 비표 안 내신 분? 혹시 기권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비표를 아직 가지고 계신 분? 네, 좋습니다. 그럼 의결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표를 안 내신 대의원이 있으실까요? 네, 의결 결과 집계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집계 완료되어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27명, 찬성 12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의 안건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정한 논의 안건은 없습니다.

혹시 논의안건을 발의하실 대의원이 계실까요?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입니다.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 안내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 쪽 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내용을 보셨을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은 총학생회 스콧이 모든 학생회로 하여금 학생회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4월 3일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선보인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서 7월 17일, 최종 채택되었구요, 모든 학생회 단위가 이를 지표삼아 학생회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으로서, 재정에 관한 모든 단위의 회칙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이 법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내용을 숙지하고, 참고하여 운영하고, 후대에 인계하여, 학생사회가 자금 운용에서만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아나가 학생회가 오래도록 신뢰받는 단체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의 대의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설명해드리니, 이를 참고해 학생회비를 운용해주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

201쪽의 목차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용어 및 방식의 정립, 학생회비 사용처, 예·결산안심의/인준/공시 절차 및 방식 정립, 다뤄야 할 재원의 범주 입니다.

‘들어가며’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해드린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및 방식의 정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띄워드리진 않고요, Pdf 파일 함께 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정립 배경입니다. 현재 ‘학생회비’라는 용어가 두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1만 원’과, ‘기층단위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회비’가 있습니다. 후자가 생소한 단위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 학과인 영상학과에서는 경우 별도로 학생회비 23만원을 걷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학과나 단과대 차원에서 학생회비를 별도로 걷는 단위가 있으신가요? 글로벌경제학과, 컴퓨터교육과, 미술학과, 연기예술학과, 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 . . 많은 단위가 걷고 있네요. 혹시 보통 얼마 걷으시나요? 학기당 만원, 한 번에 10만 원, 8학기에 16만 원, 학기당 1만 5천 원 . . .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 학우분들이 ‘학생회비 이미 낸 것 아니냐’, 하는 등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등록금과 함께 납

부하는 1만원의 경우 학생회비의 명칭은 유지하고,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학생회비의 경우 저희가 '자치회비'라는 용어를 도입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결산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둘이 같은 성격의 자금이므로 학생회비 예산안을 작성할 시에는 '학생자치회비 예·결산안'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회칙이 없는 학과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러분의 회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회칙에 따라 진행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연석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권고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사용처' 입니다.

학생회비 혹은 학생자치회비는 기본적으로 학우들에게 보편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범주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복지 사업입니다. 학우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한 사업이구요, 물품 대여 사업, 간식 배부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 사업입니다. 단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사업으로, 경영인의 밤, 글리의 밤, 홈커밍데이,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셋째, 지원 사업입니다. 단위 산하의 학생회에 대한 학생회비 배분, 혹은 학생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과대의 경우 학과에 학생회비를 배분하거나, 소모임에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넷째, 기타 사업입니다. 학생회가 해당 단위 소속 학우들의 대표성을 띄는 단체로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스승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아까 보신, 학생회비 사용처 예시를 첨부해 드렸는데, 지출내역을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회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주를 두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 및 방식 정립'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준을 해주셨는데요, 예·결산안을 작성한 이후 거쳐야 할 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심의, 인준, 공시인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회의 예·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가 서로 대동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구요, 심지어 회칙이 존재하지 않아 예결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단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 학과는 회칙이 있다, 손 들어주실까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학과 차원에서 회칙이 있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만큼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모든 학생회 단위의 예·결산안 심의/인준/공시 절차를 최대한 일원화하여 학우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집행위원들도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층단위 학생회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따르는 실

효성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결산은 단위별로 현재 회칙이 있으신 경우 적법한 절차로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예·결산안의 심의/인준/공시는 각 단위의 기존 회칙을 존중하여 우선하여 진행하되, 관련 회칙이 부재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방식이 더욱 실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방식을 따를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현행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인준 절차'를 저희가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총학생회는요, 총학생회칙에 의거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리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두번 심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의 '단과대 학생회의 예·결산안 심의 및 인준 절차'를 보아도 같습니다. 단과대와 학과의 모임인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단과대학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경제대학 학생회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학과/학부/전공 학생회의 예·결산안 심의 및 인준 절차입니다. 총학생회칙을 확인해보면 학과는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나 학과운영위원회가 있는 단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에서 매학기 초에 여는 그 학과총회, 즉 개강총회하고도 하죠, 거기에서 심의 및 의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과총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예·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는 공시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해 회칙이 존재하는 여러 학과/학부/전공 학생회에서 해당 방식으로 예·결산안 심의/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시 절차 일원화입니다. 이건 기존에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산안 공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구요, 과방, 게시판, SNS 소통창구 등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시 및 공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종 결산안은 임기 말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회비 사용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시스템화를 함으로서, 보다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재원의 범주'입니다.

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원은 크게 학생회비, 혹은 학생자치회비, 후원금, 교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학생자치회비만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후원금의 경우 학생회의 노력으로 얻은 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결산 보고와 공시의 절차만 거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주세요. 마이크는 없고 발언권 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원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차원에 동의 혹은 비동의를 여쭙본 상태여서 많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많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학생회비 관련해서 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자 함이니까요. 학생회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학생회비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고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건의 사항 및 기타 질의사항입니다. 혹시 건의 사항이나 기타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편하게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따로 없고, 발언권을 드릴테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کم교 학생회장 : 저희가 과방에 뭐가 나왔다는데 뭐가 나왔다는지 하나도 안들리는데요?

총학생회장 (조준범):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잘 못 들어서 . . . 비가 와서 물이 새었고, 물품이 손상되었고, 학교 측에 보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컴퓨터교육학과가 사범대인가요?

컴퓨터교육과 학생회장 (주현상): 해결하기 위해 관리팀에 연락을 드렸는데 언제 어디서나 물이 셀 수 있고 과방 천장이 조금 내려앉은 거 같고,...

문과대학 학생회장 (윤이준): 동일한 사안인 거 같아서 관리팀 미팅에서도 얘기 나온 거 같고 , 복도랑 과방에 누수가 발생되서 관리팀에 얘기했는데 동일한 답변 들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네 일단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과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노수 문제 관련해서 문과대학 학생회, 행정실 그리고 학생지원팀 차원으로 미팅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안건의 경우 사실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확인이 되면 사실 총학생회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리팀이나 학생 지원팀 차원으로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혹은 이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지, 혹은 학교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대학 학생회장님 제외하고 사범대학에서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사범대학 단위운영위원회와 SKKUPartner 진행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저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범대학 학생회와 논의를 해본 후 이 해당 사항을 학생지원팀 차원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네, 혹시 더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대학 학생회장 (정진우):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대학 학생회장 정진우입니다. 저는 국제관 개방시간 연장을 총학생회 측에서 학교 본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 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 진행했던 SKKUPartner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국제관 개방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관은 글로벌경제, 글로벌경영, 글로벌융합 및 ImBA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국제관은 월~토 오후 10시까지만 개방되며, 일요일에는 아예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건물 대부분의 경우 요일 구분없이 상시 개방하며, 폐쇄 시간도 12시인 반면 국제관만 앞서 말씀드렸던 개폐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글로벌경제학과 행정실을 비롯하여 경제대학 학장에게도 건의하여 학교 본부 측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 관리팀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의견만 1년째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건물개방시간이 일괄적으로 축소된 바가 있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어진 작금의 상태에서 대다수의 건물들의 개폐시간이 원복된 반면, 국제관만이 이러한 개폐시간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서 목소리를 내어 학교 본부 측에 국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을 구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먼저 진행해 보셨겠지만 사실 글로벌 학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총학생회가 모든 학우들을 대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대학과 경영대학, 그리고 글로벌융합학부의 에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을 한 번 수합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몇 시까지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등의 사항들을 조합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추가적으로 국제관 개방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혹은 각 단과대 소속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학 학생회장 (석진우):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물 폐쇄 안건 올릴 예정이었는데 혹시 건물별로 올려야 되는지 단위별로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만약 건물 폐쇄 시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건물별 혹은 단위별이 아닌 건물 폐쇄 시간에 대한 논의로 함께 안건 상정해주시면 그 안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취미교양분과장 (이일규): 최근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 일부 학과 내 규칙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용학과와 같이 해외여행 등의 개인 일정을 할 때에도 학과 교수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친구와 함께 여행일정을 잡으면서 그런 규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학과는 과의 특성상 학과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규칙을 없애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학생회가 일반 학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인지하고 있었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네 그럼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용학과 해외여행 허가 관련한 안건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게 학과 차원의 이야기다보니 총학생회 차원으로 논의가 넘어가고, 그것이 총학생회 차원으로 해결이 될 사업이 되기 이전에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과대학과 총학생회 차원으로 한번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해당 건의 주신 부분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예술대학과 함께 논의를 해본 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해결 주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에스카라 줄서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학우분들이 오랜 기간 서 있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볼만 사항들이나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학생회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물론 학우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먼저 줄을 선 학우분들 혹은 먼저 순서대로 온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순서가 꼬이게 되면 그것만큼 저희는 학우분들에게 피해를 드리는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방법인 줄서기 방식을 진행을 하였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인지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행사 안내서나 정확한 형식에 대한 공지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에스카라 기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균관 인증이라든지 학생분들의 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티켓을 발급한 이후에는 저희가 공연장 내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무대를 관람할 수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휴식 종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을 해 놓을 계획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단 저희 이번 전학대회를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 준 사무총괄국에게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저번 전학대회때에서도 간식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큐브 스테이크 덮밥 정도면 괜찮으실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간식이 수요가 많습니다. 간식 배부 줄이 굉장히 길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맛 없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른 분들께 양보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식에 있어 학생회비 전

혀 안 쓰고요, 후원금 조금 썼고. 그런 식으로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간식 배부가 남아 있긴 합니다. 임기 마치기 전에 저희가 10 월 달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 마지막 간식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그리고 저희 말씀해 주신 간식 배부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에서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 국원분들께서 이제 협찬 물품을 따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무언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큰 근거 자료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또는 아무래도 학우분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조금 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간식 배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기업과 협력을 해서 간식 배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술대학 학생회장 (임서영): 무용학과 얘기는 저희 알고 있고 학장님이랑 얘기한 상태이고 해결된 상태임. 앞으로도 단대에서 해결 안 되는 일 있으면 함께 총학과...

총학생회장 (조준범): 네 맞습니다. 학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학과에서 처리를 하고, 학과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단과대에서 처리하고, 단과대에서도 처리가 안된다면 마지막에 총학으로 넘어오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건 회수 처리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연기예술학과 학생회장 (이은찬): 종로 07 마을버스 연장 등에 있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요즘 수선관이나 경영관 앞에 보면 SWING 키보드나 자전거가 많은데, 앞으로 제휴 업체를 선정하실 때 SWING 도 고려해주시면 정말 많은 학우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결론이 완전히 SWING 이었네요. 제휴 업체로 SWING 을...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저는 물어보셨을 때 그렇게 하면 수선관 앞에 SWING 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관리팀이랑 얘기해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 . . SWING 에 대한 제휴는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사실 제가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도 SWING 을 이용하시는 분 학우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휴를 진행한다면 캠퍼스로 SWING 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한다든지라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 무조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 학우분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SWING 이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것 혹은 SWING 이 너무 높은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을 진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학우분들의 안전 우려도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해서 학교와 논의 중에 있

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 학생회장 (석진우): 저번 전학대회에서 마지막 질의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기숙사 셔틀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따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혹시 인권복지국장님 기숙사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을까요?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그때 전학대회 때 한 번 질의 주신 이후에 저희가 기숙사 행정실 측으로 확인을 해봤을 해보았는데 이제 기숙사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폐쇄되었기도 하고 그 이후에 버스 계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시 기숙사 셔틀을 재개할 생각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종로 07이라는 마을버스 진입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최대한 이제 E 하우스라든지 다른 기숙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내버스 정류장 2 개 이상을 지나면 안 된다 라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불가능했고, 이제 저희가 E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한 다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사실 모두 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접근하자면, 셔틀 45 인승 1 대를 하는 게 30 만 원에서 40 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하루에 한 대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달이면 900 만 원 1 천만 원 그리고 1 년으로 환산하면 1 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수요와 셔틀을 운영을 함으로써 드는 이익이 과연 운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아마 고민을 저희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꾸준히 기숙사 행정실에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도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범대학 학생회장 (석진우): 그럼 혹시 수요조사 등의 방식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번에 기숙사 셔틀의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학생회의 역할 자체가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저희 담당 국서와 논의해 본 후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학과 학생회장 (김수경): 저번 주에 1 교시 수업이 있어서 8 시 30 분에 혜화역에 도착해서 셔틀을 탔습니다. 이때 농구장에 내린 시간이 약 8 시 55 분, 57 분이었습니다. 통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아침에 줄이 버거킹이 있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배차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전학대회에서 장학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논의가 나왔는지, 이번에 받을 저희의 장학금을 보고 좀 흐뭇해질 수 있을 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종로 07 사업도 이뤄냈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총 7 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대가 아침에 풀로 배차가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혜화역 1 번 출구에서 수선관까지 내리자마자 곧바로 내려가 가지고 바로 태우러 가십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로터리에서 차가 엄청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7 대로 충족이 안 돼서 종로 07 사업을 이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실정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가 현재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셔틀버스가 이제 5 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이 약 2 억에서 3 억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적자인 상황이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셔틀버스를 없애도 모자랄 판에 더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로 07 과 같이 수익을 내는 그런 업체를 더 많이 들임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추가적으로 이제 셔틀버스의 경우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로 07 마을버스까지 들어서 지금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 된 조례상 들일 수 있는 증차 가능한 개수가 2 개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당장 2 대만 운영하고 있지만 학우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확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된 바로는 오늘부터 이제 종로 07 운행 정보에 대한 정보가 네이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걸로 전달을 받았습시다. 따라서 종로 07 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학우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증차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장학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학생회에서 정말 많은 학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인지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경우 30 명이 넘는 거의 40 명이 다 되어가는 국원과 국 · 차장분들이 함께 일을 해주고 함께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학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걸 인지하고 있고 총학생회라는 단체 내에서 무언가 조금 더 단체에 임하는 학우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학교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지난번 전학대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물론 다들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다들 학생 사회에 대한 열망 혹은 학생 사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계시는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보면 보상이 있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그것 보다는 학생 사회의 일원으로서 학생회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해내야지 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보답을 드리고 싶으면서도 이러한 절차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전달드릴 수 있는 점은 학생지원팀 차원에서도 많은 학생회가 정말 밤낮없이 일하고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지원팀 차원에서도 무언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조금 더 학생회 활동을 진행하는 학우분들이 의미 있게 이 활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학생 사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생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학과 학생회장님들께서 받는 금액이 제가 90 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차례 오른 금액입니다. 원래 70 만 원이었었고요. 그게 몇 년 전에 올랐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 계속 된 건의를 통해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의는 꾸준히 있어왔고, 학교 차원에서 매년 그렇게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역설적이게도 학교가 돈이 없고, 돈이 있으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 학생회가 등록금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어 학생회 장학금 더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이렇게 지금 벌써 9 시가 됐는데 이렇게 밤 늦게까지 많은 의견 내주시고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요구들을 정말 실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취미교양분과장 (이일규): 그럼 봉사시간이라도 좀 . .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학생회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확답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 질의 주셨던 것에 대한 대답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학생회 활동으로서 하는 부분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교에 다른 행사를 위해 무언가 참여를 할 때 봉사활동 시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학생회 활동 외에도 많은 활동에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조준범): 질문 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는 ESKARA 축제 이후 회칙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칙개정은 필히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회칙개정소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대략 10 월 말에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될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 정해지는 대로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학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분들도, 집행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2023 학년도 2 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21 시 01 분 기준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 나가실 때 저희가 출구가 좀 복잡해서 저희가 안에서 명찰과 비표를 전부 수거하고 퇴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